

최근 중국 민영기업 현황 및 전환 사례

1. 개요

-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둔화, 노동계약법의 시행(2008.1),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최근 중국의 민영기업은 개혁개방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영난에 직면한 민영기업들 중 전환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영기업을 위한 장려책을 제시

2. 민영기업 현황

- 민영경제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영기업은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
- 중국 경제를 소유제별로 나눌 때 넓은 의미의 민영경제¹⁾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GDP의 65%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개체사영경제가 40%를 차지
- 또한 중국경제발전 증가분의 70~80%가 민영경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호구를 기준으로 전국 비농(非农)취업의 80%를 민영경제가 담당

1) 소유제별 기준으로 민영경제는 국유주주경제(国有控股经济) 이외의 모든 비공유제 경제를 의미함.

- 2007년 기준 사영기업 종업원 수는 1억여 명 수준이나 실제 종업원 수는 약 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세수측면에서도 2007년 기준 사영기업의 세수 총액은 4,775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95.6%를 차지
- 2007년 민영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3,476억 위안으로 전체 수출입의 15.8%를 담당(특히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27.6%)
- 전국 500대 민영기업 중 203개를 차지하는 저장성(浙江省)의 경우 성전체 생산총액의 70%, 세수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전체 무역수출과 고용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 90%이상으로 민영기업이 지역 경제의 주축임.
-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출판(2008.10.22)한 “중국민영경제발전보고 NO.5(2007-2008)²⁾”에 따르면, 2008년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와 중국 국내경제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민영경제에 큰 변화가 발생함.
- 민영기업들 가운데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산을 일부 중단하거나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
- 윈조우(温州) 신발제조업협회(鞋革行业协会)의 “2008년 2분기 신발제조업 경기 분석 보고서(2008年第二季度鞋革行业经济运行情况分析报告)”는 윈조우의 신발제조업체들은 최근 몇 개월간 도산 또는 원래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제품을 생산(转产)하는 업체가 100개에 달한다고 밝힘.
- 또한 윈조우의 한 민간조사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약 30만개의 제조업체 중 20%가 생산 중단상태에 처해있음.
- 이와 관련해 2008년 3월 윈조우 중소기업발전촉진회장(温州中小企业发展促进会会长) 조우더원

2) 중화공상업연합회(中华工商行业联合会)가 집필

(周德文)도 약 20%의 기업들이 생산을 일부 중단 하거나 완전 정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으나, 현실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함.

· 2008년 관련 통계 수치들에 따르면 원조우(温州)의 경제성장은 이미 성(浙江省)전체 평균 성장속도보다 느림³⁾.

- 원조우의 따후(大虎)라이터유한회사 이사장 조우따후(周大虎)에 따르면, 2007년과 생산액은 비슷하지만, 원가상승으로 이윤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

□ 이러한 민영기업의 경영난은 원가상승, 자금(대출 및 상환)난, 판매(수출)부진 등에서 비롯됨.

- 중국정부의 거시조정의 결과(2008년 상반기 기준) 및 금리인상) 기업 대출이 어려움을 겪게됨.

· 2008년 1/4분기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 중 사영기업의 대출증가분이 전년 동기대비 1.32%포인트 하락

- 원가상승은 크게 임금상승과 에너지 및 원재료 구입 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음.

· 타이조우(台州市委)정책연구실의 쟡용성(张永胜)은 저장 민영기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제조업체들로 원재료와 에너지의 가격상승으로 경영난에 직면하였다고 평가

· 또한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발효로 임금이 상승

-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해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중소 민영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음.

□ 이러한 민영기업들의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임.

3) 2008년 1~4월 원조우의 누계 공업생산액 증가율과 1~5월 수출이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각각 7.2%포인트, 7.2% 포인트 하락

- 특히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구조를 볼 때, 민영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3. 민영기업 전환 사례

- 민영기업의 전환에 관해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는 민영기업의 집결지인 원조우(温州), 퉁완(东莞), 스스(石狮)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2008.8).
- 조사 결과 이 세 지역의 민영기업 모두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급속하게 발전했으나, 최근 경기부진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가. 원조우(温州)모델⁴⁾의 한계

- 원조우 민영기업 전환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⁵⁾ 위주라는 한계와 가족경영의 특성으로 진정한 기업 관리와 전환이 어려움.
- 원조우 민영기업은 저우추취(走出去)를 위시해 그동안 활발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원가상승과 시장수요의 감소로 부진을 겪고 있음.
- 원조우 공상부문 관료에 따르면 원조우 관할 지역 대부분의 민영기업은 신발밀창, 구두굽과 신발 끈을 생산하는데 2008년 상반기 실적이 30% 이상 감소
- 또한 전세계 라이터시장의 80%를 차지(연간 생산량 6억 개)하는 원조우 지역의 라이터 생산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안경제조업의 경우도 원가상승에 따른 이윤감소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경영난으로 민영기업의 대규모 도산을 우려하여 이 지역 민영기업들은 업종 전환을 피하

4) 원조우 모델은 혈연, 지연이라는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족) 경영방식이 특징이며, 자원결핍이라는 지역 경제 환경제약을 극복하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활발한 민영경제모형이 되었음.

5) 신발, 의복, 안경 등이 현재 원조우의 주요 생산제품임.

기 시작함.

- 그러나 대부분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다른 형태의 노동집약적 업종으로의 단순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또한 대부분의 민영기업이 가족에 기반을 둔 배타적인 경영위주로 기업전환에 필수요인의 하나인 ‘외부인재’의 등용이 쉽지 않음.

나. 동완(东莞) 지역

- 이 지역은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최근 경기부진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지만 기업전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동완의 민영기업은 주로 위탁가공, 조립가공, 보상무역 등을 통해 급격히 발전해 왔으며, 소규모 기업들은 외자기업의 작업장(공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
- 그러나 중국 기업(작업장)간의 과당 경쟁과 최근의 경기 부진으로 주문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기업 도산이 연이어 발생함.
- 이 같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동완의 민영기업들은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업 전환보다는 이주나 도산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임.

다. 스스(石狮) 지역

- 푸젠(福建)성 스스(石狮)는 중국 최대 캐주얼 의류 생산지로서 80년대부터 외자기업의 의류 생산 공장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룸.
- 스스(石狮)는 인구 30만 명의 현급시(县级市)이지만, 5,000여개의 의류 및 관련기업이 집중해 있

고, 그 주변으로 2만 여개의 의류 하청기업이 분포되어 있음.

□ 그러나 민영기업 대부분이 가족경영 중심의 소규모로 이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매우 낮은 수준임.

-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스(石獅)에서 제작한 의류의 50%가 수출되지만, 그 중에 중국 브랜드는 전체 수출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임.

- 즉, 국내 브랜드 창출 의식이 약하고 하청에 만족하거나, 심지어 일부기업은 그나마 이제 막 생성된 국내 브랜드를 모방하고 있는 실정임.

□ 스스(石獅)의 민영기업들은 최근 원재료의 가격 상승, 높아지는 품질 수준 요구로 외자기업의 하청공장을 포기하고 내수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원료가격이 상승하는데 반해, 구매상들이 원료의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제고하면서도 제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이윤은 점점 축소됨.

- 그러나 내수로 전환할 경우, 원료의 품질 보증을 위한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대신 내수로 방향을 바꾸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4. 민영기업 전환의 방향 및 정부의 대책

□ 저장(浙江省) 제11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차 회의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 전환과 업그레이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2008.8).

- 저장(浙江省) 경제에서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구조를 볼 때, 주로 민영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짐.

□ 저장경제무역위원회(浙江省經濟貿易委員會) 쩡이광(鄭一方) 부주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과학기

술 장려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및 정책환경의 개선을 통해 전통적 민영기업이 장비제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거두었다며 모범사례로 평가

- 저장의 289개의 유명제품 중에서 108개는 장비제조업 제품이 차지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으며, 정부는 장비제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하기 위해 산업 구조 조정 등 최적화 작업에 착수
- 저장성경제무역위원회(浙江省經濟貿易委員會)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저장의 규모이상 장비제조업의 수출액은 4,189.4억 위안에 달함. 현재 저장의 장비제조업의 성장은 전환 기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양말이나 셔츠를 생산하던 기업들이 장비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저장의 전체 장비제조업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한 것임.
- 2008년 1/4~3/4분기 중 저장 장비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

□ 이러한 성공적인 민영기업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적할 수 있음.

- 쩡이팡(鄭一方)은 저장정부가 기업의 신제품 개발비용 지원, 최첨단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장비제조업 주력 상품 생산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2007년에만 총 4,000만 위안을 지원하였다고 밝힘.
- 이러한 성공적인 기업전환에 고무되어 상당수의 전통 민영기업들이 장비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신청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도 민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내놓고 있음.

- 광둥지역을 방문한 국가부주석 시진핑(習近平)은 민영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진흥책으로 지방 및 각 부처들이 이들 기업을 위해 각종 지원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2008.7)

- 원조우 중소기업발전촉진회(温州中小企业发展促进会) 조우더원(周德文) 회장은 원조우의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것들로, 중소기업 세수감면과 자금조달 시스템 개혁을 지적
- 그는 “만약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수감면이 어렵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급 등의 방식을 통해 세수감면을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소액대출회사의 설립과 민간자본에 의한 은행의 설립을 시도할 것을 제안

<참고 자료>

《经济观察报》, “温州、东莞、石狮三地民企生存状态调查”, 2008.9.29~10.6

http://news.xinhuanet.com/theory/2008-07/02/content_8473428.htm, “民营经济步入发展新阶段”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10/22/content_10234331.htm, “中国民营经济发展报告表明:今年民营经济发展环境出现新变化”

《中國新聞網》, “浙江鼓勵傳統民營企業轉型裝備製造業”, 2008.10.25

(자료 정리: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박사과정 이성란)